

■ ■ ■ 중보기도 Intercession Prayer

1. 제 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하여
2. 2021년도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3. 환우와 시니어 공동체를 위하여
4.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하여
5.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6. 선출된 청빙위원들을 위하여
7. 국내/해외 선교지와 사역자의 안전을 위하여
8. 한반도 평화와 정세 안정을 위하여
9. 미국의 정치/경제/문화를 위하여
10. 지역교회 살리기(포도나무교회-김명신 목사) 위하여
11. 이번주 지역교회 중보기도: 타코마 새생명교회 - 임영희 목사

■ ■ ■ 국내/해외 선교 Home/Overseas Mission

국내 선교 지역

- ▶ 방송 선교지원
- ▶ 노숙자 동지 선교회
- ▶ 아프리카 우물파기
- ▶ 샤론센터
- ▶ 오병이어의 기적 M52
- ▶ 한국선원 선교회
- ▶ 이완구 장학사역

선교 방송 스케줄

- ▶ 코엠TV(채널 257): 매주일 7:25AM
- ▶ 라디오 한국(AM 1450): 매주일 8:30AM
- ▶ 라디오 코리아(어플다운): 매주일 7:00AM

해외 선교 지역

- ▶ 동아시아 50개 교회
- ▶ 독일/시리아 난민선교(JDL)
- ▶ 쿠바(정경석)
- ▶ 니카라과(해밀턴)
- ▶ 도미니카 아이티(문애희/Vilcaive)
- ▶ 우크라이나(박철규/김경희)
- ▶ 잠비아(Emile)
- ▶ 말레이시아(고인섭)
- ▶ 터키(이성숙/자슈아)
- ▶ 슬로바키아(서일원/조정선)
- ▶ 헝가리/집시선교(박완주)

기독교 기관 선교

- ▶ 미주 남침례회 SBC
- ▶ 북미주 한인침례총회 CKSBCA
- ▶ 서북미 한인침례교 협의회
- ▶ 한인국내선교부
- ▶ 한인해외선교부
- ▶ 남침례교 6대 신학교
- ▶ 한국침례신학대학교
- ▶ 밀알선교단

제일 어린이 동산(Day Care)

1328 S. 84th ST., Tacoma
253) 535-9435 Director 박정희

아름다운 기도원

28814 Mountain Hwy E, Graham
253) 847-2250 Director 안광일 목사

SINCE 1975

2021년 6월 27일

WORSHIPPING CHURCH 2021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너진 세대를 연결하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령공동체이다.

주일예배

장년부 제1부 한어예배 7:40AM / 본당
장년부 제2부 영어예배 9:20AM / 본당
장년부 제3부 한어(통역)예배 11:00AM / 본당
사랑부 예배 (장 애인)..... 11:00AM / 베들레헴

영아부 예배 9:20, 11:00AM / O-3
유치부 예배 9:20, 11:00AM / 나사렛
유년부 예배 9:30AM / 베들레헴

영어청년/Youth 예배 11:00AM / 안디옥
한어청년 1:30PM / N-201

수요일예배

장년부 한어예배 7:00PM / 본당
장년부 영어예배 7:00PM / 안디옥
영아부, 유치부 어와나 7:00PM / 나사렛
유년부 어와나 7:00PM / 베들레헴

금요일모임

Youth 7:00PM / 안디옥
영어청년 7:30PM / 유스룸
한글학교 6:00PM / 각교실

새벽예배

한어부 월-토 / 6:00AM / 본당
영어부 화-토 / 6:00AM / N-202

CONTACT

Phone: 253.535.5803 Fax: 253.535.2240
Address: 1328 S. 84th St., Tacoma, WA 98444
Email: tfbc002@gmail.com

tfbc 타코마제일침례교회
Tacoma First Baptist Church

YouTube tfbc

www.tfbc.org



주일예배

Worship Service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0

3부 예배 오전 11:00/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인도: 남궁곤 목사

* 경배와 찬양

1부: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
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3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온 맘 다해”
“예수의 길”

기도

1부: 정자열프 집사
3부: 이종덕 집사

봉헌찬양

1,3부: 500장 “주 음성 외에는”

공동체소식

* 성경본문

사도행전 18:24-26

제목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말씀선포

전우일 목사

* 응답찬송

1부: 268장 온 세상 위하여
3부: “우릴 사용하소서”

* 축도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All Rise)

이달의 말씀 Word of the month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
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1-2)

7. 유치부, 유년부 현장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부모님께서는 7월 첫째 주일부터 진급한 학년으로
현장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자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9:30 예배	유치부(3y-K)	나사렛 성전	유년부(1-6학년)	나사렛 성전
11:00 예배	유치부(3y-K)	나사렛 성전	유년부(1-6학년)	베들레헴 성전

※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새학년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링크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음)

8. 자원봉사자 모집: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은 로비 안내데스크의 사인업 용지에 신청바랍니다.

(1)유치부 유년부 교사 및 자원봉사자 모집

(2)주차장 안전 요원 모집: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 때

9. 생명의 삶 7월호를 교회 사무실이나 로비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권당 \$5)

10. 예수마을모임: 예수마을 모임(한달에 1번)을 각 마을 형편에 맞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돌봄지기께서는 COVID-19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수마을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현금 안내: 현장 예배에 못오시는 성도님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현금(수수료 현금액
x 2.69% + \$0.30)하거나, 우편으로 현금(되도록 체크로)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2. C-Drive 사역: COVID-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와 이웃, 그리고 미주 침례교 목회자들을 위한
사역을 진행중입니다. 기부물품이나 항목현금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사역(Administration Ministry) ◆

◇ 유년부 사역을 담당했던 Leah An 선생님은 단기 선교사 훈련 및 준비로 6월까지만 사역하십니다.
수고한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선생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교회는 안전을 위하여 기존에 진행하던 코로나 방역 지침을 당분간 유지하겠습니다.

(1) 교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2) 입장 절차를 지켜주세요(손소독, 체온 점검, 이름 기록).

(3)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여 자리에 앉아주세요.

◇ 주중에는 교회 메인 게이트(M번가)를 닫습니다. 데이케어 쪽(84번가) 게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수요일예배와 주일예배때에는 열어 놓습니다)

◆ 교우동정(Compassion) ◆

◇ 중보: Tom Bayliss, Floyd Richardson, Anthony Milas, Eric Mose, 최재돈, 오창자

드려진 예물 Last week Offering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사역자를 만나 교회 등록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WORSHIPPING CHURCH 2021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TFBC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워싱턴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거나 교회를 방문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일 2부/3부/유스(영아청년부)/수요성령예배는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를 계속 제공합니다.
- * 유년부, 유치부, 영아부, 사랑부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 * 새벽예배는 현장예배와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동시에 예배를 제공합니다.

◇ 현장예배 가이드라인

- * 교회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반드시 지정된 자리에만 앉아 주세요.
- * 서로서로 신체 접촉은 피하시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 * 본인이나 가족 중 아프신 분이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주세요.
- * 예배가 끝나면 신속한 방역을 위하여 본당 건물 밖으로 퇴장해 주세요.

1. **2021년 교회 표어는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 **수요성령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풍성한 찬양과 말씀이 있는 수요성령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평강"**이란 주제로 누가복음 강해를 진행 중입니다. 수요성령예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제 4대 담임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세워질 담임목사님과 선출된 청빙위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빙 진행에 관하여는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를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빙광고: 6/8(화)~7/31(토), 청빙광고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2021년 여름성경학교(VBS)가 6/25(금) 부터 27일(오늘)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VBS 영상을 계속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름성경학교에 참여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교회 피크닉: 7/4(주일) 오후 12:30**, 교회 서쪽 주차장. 교회에서 간단한 점심(햄버거, 핫도그, 불고기, 물)을 제공합니다. 개인 의자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단 우천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교회 피크닉 준비와 정리에 도움주실** 분들은 로비 신청서에 신청바랍니다. (문의: 전우일 목사)
6. **하나님의 VIP 2021년 2기 개강: 7/11(주일) 오후 1시, N-209호**에서 시작합니다.
4주 과정의 하나님의 VIP를 수강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과 새가족들은 로비의 신청서나 교회 사무실에 전화로 신청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요성령예배

Wednesday Prayer and Worship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이다

수요일 저녁 7:00/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찬양과기도	찬 양 팀
기 도	명숙헨리 집사
제 목	[누가복음 강해 29: 평강]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성 경 본 문	누가복음 8:40-56
말 씀 선 포	전우일 목사

■ 봉사위원 Volunteer

	이 번 주	다 음 주
기 도 Prayer	1부 정자알프 집사	1부 권경수 집사
	3부 이종덕 집사	3부 이호영 집사
	수요 명숙헨리 집사	수요 채길호 집사
주차장	안전을 위해서 본당 앞쪽으로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 Usher	안내: ① 교회 로비에서 온도체크를 받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항상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① 당분간 예배 중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② 로비에 비치된 헌금함이나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오찬 봉사	COVID-19으로 당분간 주일 오찬은 없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

날짜	본문	설교자	날짜	본문	설교자
6/28(월)	출애굽기32:1-14	정주영 목사	6/29(화)	출애굽기32:15-24	안재훈 목사
6/30(수)	출애굽기32:25-35	남궁곤 목사	7/1(목)	출애굽기33:1-11	정주영 목사
7/2(금)	출애굽기33:12-23	남궁곤 목사	7/3(토)	출애굽기34:1-9	전우일 목사

※ 새벽예배는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제공됩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나의 아버지
□ **본문:** 갈라디아서 4:1-7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불교인들이 부처를 “부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무슬림들도 “알라”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형식적인 아버지, 무늬만 아버지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아버지들처럼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울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사실 이 표현을 먼저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바”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확대되면서 성경은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수 있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듣게 되는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사랑하시는 “아바, 아버지”가 되셨는데, 이것만큼 반가운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이제 여러분은 이제 대기업 회장 아들, 대통령 아들도 부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육신의 아버지에게 사랑을 못 받았더라도 괜찮습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없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있게 살아갈 수 있는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가지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과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분의 자녀들인가하는 의문입니다. 안타까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분의 자녀들은 아닙니다. 원래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인간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해 타락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되는 것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모든 인간이 죄에 사로잡혀 죄의 종이 되었다고 로마서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가지 조건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은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6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 아들”은 우리가 아는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며, “그 아들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비록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여도, 어릴때는 자기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없으므로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시 바울이 살던 로마시대의 보편적인 문화였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문화가 존재합니다. 어린 나이에 큰 재산이나 유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가 어릴때는 법적인 관리하에 조금씩 돈을 타서 쓰다가 성인이 되어서 모든 재산을 마음대로 할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세의 율법 아래 복종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 온전한 상속자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왔던 율법의 수준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과 비교했을때 초등학교문이나 마찬가지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율법 자체가 너무 하찮은 수준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대단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인간에게 선했 것이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림자요 모형이지 실체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5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속량하시고”라는 표현입니다. ‘속량(贖良)한다’는 말은 값을 치루고 건져내서 자유롭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양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아들 예수의 피와 죽음으로 지불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고, 이제 더이상 후견인이 필요없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생기는 또 다른 특권이 7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7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유업은 어느 유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유업인 하나님 나라의 유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며 죽으신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이 세상의 아버지들이 물려주시는 것들처럼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들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하늘의 유업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절대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생명이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유업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유업은 “영원한 생명”이외에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사도바울은 다음과같이 설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의 유업에는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영혼 구령의 사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 명하신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유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여러분에게 “아바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어떤 하늘의 유업을 주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유업을 이어받은 상속자라고 믿으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에 목숨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사랑과 애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하늘의 유업이 의미하는 두가지는 무엇인가요?
3.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요?